



국난극복과 바른신앙 위해 기도한다

70주년 광복절 맞아 8·15 국가기도회 개최
8월 12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는 지난달 27일(월) 오전 11시 양평동 교단 총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7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을 기해 개최하는 8·15 국가기도회 준비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되기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병성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후 2: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을 혼잡케만 할뿐이며 오히려 미혹케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직 말씀대로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해',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영적개혁을 위해'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반대'를

위해' 김국경 목사, 박형렬 목사, 이강익 목사, 박동호 목사의 주례별 기도 인도가 있었으며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의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회의에 들어가 오는 8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안양성전에서 개최하기로 한 8·15 국가기도회의 순서와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동연합회는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직시하고 이를 앞장서서 계도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애, 용공주의 등 그릇된 신앙을 성경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포토뉴스



교단재판위원회(위원장 김양민 목사)는 지난 3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실행’



조용목 목사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눅 17:26~29)

인식이란 사물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실행이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참된 모습과 상태를 인식하는 일과 인식한 대로 믿으며 실행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실행은 신앙생활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 받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데까지 반드시 있어야 할 요건입니다.

먼저, 올바른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로 인식하고 있다면 마치 틀리게 표기된 길 안내판을 따라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물의 실상과 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 방면에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노아의 가족과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는 결국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소돔 성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뜻을 통해 전해준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타의 모든 지식과 행위는 무너져 버리게 될 터전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사람이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역사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참된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유익과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실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떡”은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합니다. 진실을 인식하고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 당도하였을 때 모세가 여호와 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재와 권능을 체험하였고,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며,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확실하게 인식하였지만 그러나 실행하지는 않았습니 다. 다윗을 시키 하여 죽이려고 추적하던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의롭고 자신은 불의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 제막식에서 절하지 아니한 히브리 세 청년을 용광로에 던져 넣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불 가운데서 유유자적하게 걸어 다녔고 밖으로 나온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없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옳게 인식하는 것과 그 인식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인식이 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인식한 바대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일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예금주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우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7월 20일(월)~8월 13일(목) 17:00 까지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 2015년 7월 20일(월)~8월 13일(목) 17:00 까지
- ④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은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 바람.
- ⑤ 접수방법 :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북한선교와 탈북민사역’ 컨퍼런스

오는 8월 14일, 북한선교의 미래방향성 제시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70년을 맞아 한국 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는 8월 14일 오전10시부터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종교교회에서 ‘통일의 문, 북한선교와 탈북민사역’을 주제로 북한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미래와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목회포럼 과 북한 및 통일 선교 실무 사역자들로 구성된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사역목회지원회, 그리고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단체인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공동으로 북한선교 사역현장을 진단하고, 복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교회에 북한선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개회예배는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의 사회, 박경배 목사(송준장로교회)의 기도, 이철신 목사(영락교회)의 설교, 차현희 목사(세계예슬리전교회)의 축도로 진행된다.

1부 발제와 토론은 김대동 목사(분당구미



교회)가 좌장으로, 주발제에 북한사역목회지원회의 오성훈 회장이 나서 북한선교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다. 북한선교 현장사역자들과 한국교회 목회현장의 소리를 듣고, 진단과 대안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2부 발제와 토론은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가 좌장으로,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목사가 탈북자 사역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3부는 통일 및 구국기도회의 전문

성을 가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서 기도함주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청인 이윤재 대표(미래목회포럼)는 “광복70주년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국민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한의 분단70년을 극 복하지 않고서 광복의 완성은 불가능하므로, 남북이 뜻을 함께 하여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 경찰교회 리모델링 감사예배

경목실도 함께 리모델링

서울관악경찰서 경목실(경목실장 양정섭 목사)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관악경찰서 경목실과 경찰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경목실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교경협의회 공동회장 조준현 목사가 기도, 교경협의회 서기(은전제일교회) 최인광



목사의 성경봉독, 경찰서 신우회원의 특별찬양, 교경협의회 대표회장 박규갑 목사(영진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규갑 목사는 전 412을 본분으로 한 할

수 있다고 말하리”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리더십을 가지고 전진하며, 경찰교회와 경찰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악경찰서 유진규서장의 인사말, 관악감리교회 송신용 장로에게 감사패 전달, 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의 축사, 관악경찰교회 신우회장 오길용 집사의 광고 후 교경협의회 상임회장 이정서 목사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고 전광호 선교사 순교 10주기 추모

한국창조과학회

15년 전 한국창조과학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에 창조과학을 통한 선교를 감당하다 사역 5년째 되던 해에 폐암으로 순교한 고 전광호 선교사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10주기 추모예배가 지난달 18일 서빙고에 있는 은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창조과학회 회원과 유가족이 모여 고

전광호 선교사의 소명과 헌신을 기린 추모예배는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 지배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조주의 진리를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고 전광호 선교사의 생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고 전광호 선교사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브리위자야 국립대학에서 창조과학과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내 김혜란 선교사와 그 동안 교육

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다른 지역과 섬들까지 들어가 살아가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 전광호 선교사의 예수님을 닮은 헌신과 순종의 본을 따라 앞으로 한국창조과학회와 기독교학인들,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 맺게 될 것을 소망했다.

기독교정당의 원내진출 위한 서명발기인대회

동성에 합법화와 종교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 악법 저지 목적

“(가칭)기독교자유당 창당을 위한 300만 기독교인 서명발기인대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종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열려,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독교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한교연, 한장연, 한국장로총연합회 등 연합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전한 최병두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는 “하나님의 통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3대 기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1천만 성도, 25만 장로, 20만 교역자들이 합심하여 기독교정당의 원내진출을 달성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한 발기인들은 기독교정당의 창당 취지문을 통해 “동성에 합법화, 스쿠크법, 종교차별금지법 등 기독교의 선교토대를 무너



뜨리는 반 기독교적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정당의 창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 세우기국민운동 대표)의 사회로 최윤권 목사(서울기독교대 명예총장)의 기도, 홍호수 목사(한교연 총무협 회장)의 성경봉독, 최병두 목

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설교, 김재송 목사(예장 증경총회장)와 양원준 장로(한국교회개혁포럼 상임회장)의 특별기도, 김동권 목사(기지협 상임회장)의 격려사, 김진호 목사(기갑 전 기독교회장)와 황장수 소장(미래경연연구소)의 축사, 신진목 목사(기지협 대표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월드비전, 제5호 큰마음어린이 도서관 개관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사)한국능률협회(회장 이봉서 www.kma.or.kr)의 후원으로 지난달 14일 대구 범물복지관에 ‘큰마음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다. 대구 큰마음어린이 도서관은 한국능률협회(KMA)가 월드비전과 함께 개관한 5번째 도서관으로,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이 더 큰 세상을 통해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후원기업과 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건립되었

다. KMA는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수만큼 도서관을 기부하는 ‘더독다독(多讀) 이벤트’를 진행하여 1천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함께 기증하였으며, 도서관은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개관식에는 한국능률협회 최권석 대표,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이진훈 수성구청장, 박원식·조용성 수성구 의원, 구정모 한국월

드비전 이사(대구북화정 대표), 범물초등학교 이부영 교장과 지역아동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시설을 KMA의 도움으로 개관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아동들이 책을 보며 꿈을 키워나가고 큰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TS, 〈동성에 STOP!〉 대국민 캠페인 전개

〈CTS특별대담〉 편성 및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동성애를 바로 알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캠페인 〈동성에, STOP!〉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먼저 〈동성에, STOP!〉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TS특별대담〉을 편성한다. 5부작으로 방송되는 〈CTS 특별대담〉은 지난달 17일 방송된 1부 ‘신학적 측면에서의 동성에 조망’을 시작으로, 2부 ‘사회·보건적 측면에서 바라본 동성애’, 3부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본 동성애’, 4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동성애’, 5부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동성애’를 주제로 제작·방송할 계획이다. 〈CTS 특별대담〉은 오는 8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밤 11시에 재방송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대구 〈CTS뉴스플러스〉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문화·보건적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하고 있으며, 향후 3부작 특집다큐멘터리 〈(가제)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제작, 9월 방송할 예정이다.

CTS는 “전동성에 단체 등이 소수자의 인

권을 내세우며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해 공익 방송인 CTS가 대국민캠페인 〈동성에 STOP!〉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심기 범국민운동 ‘비전선포’

분단과 광복 70년을 맞아 북한에 통일화합나무를 심어 푸른 한반도를 만드는 법인(농림축산식품부 제721호.5.1) 단체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대표회장 전용재, 상임회장 겸 부장 김영진)는 법인설립감사예배 및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비전선포식을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의 뜨거운 마음을 모았다. 1부 법인설립감사예배에는 이종복 상임회장(예성 직전총회장)의 사회로 김희신 상임회장(예장 통합파리선 총회장)의 기도, 장로 찬양단HIM의 특송과 함께 김동영 상임회장(예장통합 직전 총회장)은 시편11:1-7절을 본문으로 “더를 뉘는 의인들”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통해 “통일화합나무8천만 그루심기 범국민운동은 더가 무너지는 이 땅에 새 비전을 제시하고 새 터전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조일래 상임회장(기성전 총회장)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2부 비전선포식은 장현일 상임이사(한국기독교공정경제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개회인사로 전용재 대표회장(기갑감독교회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창

조질서를 보존하는데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사명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통일을 향한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 우리 하나되자”고 강조했다. 인사 및 보고의 시간을 통해 김영진 부부장(전 농림부장관)은 “분단의 아픔과 함께 민족 사랑의 애절한 심정으로 모인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하나 되는 소통의 길이 나무를 심는 첫 걸음임을 생각하며 여야와 출신지역,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국민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통일이 더 지연되던 민족의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북한 나무심기 등에

앞장서 평화통일을 앞당길 일에 더욱 크게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며 “남과 북이 공의를 쌓는 일, 즉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것이 중요하고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이 곧 의를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현일 상임이사는 사임보고를 통해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농축산 등 민생개발협력과 잘 연계하여 주민의 삶 개선에 힘쓰고자 기술정책지분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 중이다”며 “안료와 조립, 연료와 식량 등 녹색한반도를 위한 체계적 산림프로젝트를 기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알포럼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김충현 목사, “밀알포럼 위해 밀거름 되겠다” 다짐

밀알포럼 제5대 대표회장 김충현 목사 취임 감사예배 및 직전회장 최석우 목사 이임식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운평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충현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5대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화원들의 협조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밀알포럼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1부 예배, 2부 특별기도회, 3부 축하와 격려, 4부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변충진 목사의 사회로 운영회장 라계동 목사가 출 19:3-6을 본문으로 한 “우리를 제자집으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상임회장 오정열 목사의 축도에 이어 운



영회장 김민교 목사의 사회로 열린 제2부 특별기도회는 ‘나리와 대통령과 위장자’ 지역 회장 송정민 목사가, ‘밀알포럼의 발전과 화원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지도위원 하정인 목사가, ‘낙도 오지와 미지립교회를 위하여’ 부총회장 여성규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

했다. 3부 축하와 격려시간에는 운영총재 김영남 목사, 증경회장 김종재 목사, 이성규 목사, 고재윤 목사가 격려사를 한데 이어, 중부협의회 대표회장 정진모 목사를 비롯한 단체별 대표들이 나와 축사를 했다.

“백마디 말보다 더 소중한 단 한번의 포옹”

도심 속 가족힐링캠프

신체놀이(Body Play)를 통해 가족진밀감을 강화시키는 “가족힐링캠프(Family Healing Camp)”가 8월 8일(토) 오후 1:00~오후 7:00까지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센터(원장 김향숙 박사)주최로 개최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과부하에 걸린 뇌를 휴식하며 재정비할 시간임에도 놀지 않는다. 또 다시 선행학습, 보충학습, 집중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으로 자녀들을 내몰다. 휴가철

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다. 산으로 바다로 떠나보지만 교통체증, 더위, 수많은 인파에 지쳐 짜증나기 십상이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지만 함께 놀 줄은 모른다. 각자 SNS와 소통하기 바쁘다. 기계와 놀고 기계와 친하다. 그러나 가족과는 친하지 않다. “따로 노는 가족, 각자 사는 가족, 남과 같은 가족”이다.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가정은 정서불안의 주범이다.

가족힐링캠프(Family Healing Camp)는

가족문제연구소인 (사)하이패밀리의 25년 노하우와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신체놀이가 결합된 가족진밀감 강화 프로젝트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몸과 몸이 만나 움직임이 놀이가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된다.

가족힐링캠프는 몸과 몸이 만나는 1단계, 몸과 마음이 만나는 2단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가족 간 진밀감, 소통력, 행복력을 증진시킨다. 02-2057-0033, www.hifamily.net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의 향기를 발하게 하옵소서!”

폭염이 무색했던 경건훈련의 열기... ‘2015 청년 여름수련회’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 30일(목)부터 8월 1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과 수양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는 주제로 한여름 매서운 폭염을 무색케 하는 청년들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속에 열렸다. 청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신하고 교제하는 다채로운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 말

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젊은 날에 더욱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전도에 합을 것을 다짐하였다. 첫 날 개회예배, 조별모임 전체특강(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순서가 진행된 후 저녁에 대성전에서 담임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는 김정훈 목사의 사회로 청년봉사선교회

대표고분 유훈 장로의 기도, GNTC 청년오케스트라의 찬양에 이어 2시간 30분 진행되었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청년들에게 임하여졌다. 조용목 목사는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에서 성령세례와 방언 역시 복음전도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이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신자는 자신이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 그리고 방언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과 확고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함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정리된 바른 지식과 선명한 이해를 갖게 해주었다. 이어서 청년들은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소리 높여 찬송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였고,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조 목사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모두 지혜롭고 건강하여 활발히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앞날의 꿈과 소망을 주 안에서 성취하도록 축복해 주었다. 2박 3일간 계속된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주제에 맞춰 구성된 다채로운 야외활동과 특강, 성경암기와 말씀묵상, 주제별 기도회, 즐거운 아침 신책과 물놀이, 교제의 시간 등의 순서에 참여하여 신령한 지식을 쌓고, 기도응답을 받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면서 신령한 은혜와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미국AG 한국총회 성령충만수련회

CA 수양관에서 3박 4일간 개최...김남수 목사, 진등용 목사 등을 강사로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 성령충만수련회가 오는 9월 21일(월) 오전부터 24일(목) 오후까지 3박 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아름다운산장수양관에서 열린다.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주최로 미국 하와이 Rany 목사, 텍사스 Miller 목사, 미국 뉴욕 프라미스

처지 김남수 목사,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진등용 목사 등을 강사로 하여 4일간 말씀충만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본 교단 목회자들도 43명이 참여해 미국과 한국 AG 간의 신앙적 교류는 물론 양 조직간의 펠로



정영호 목사



김남수 목사



진등용 목사

우심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 세상과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청담온선교회 창립, 집사안수 및 권사 취임식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달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 청담온선교회(담임 분찬우 목사) 새성전에서 창립예배 드렸다.

아울러 청담온선교회는 진용일 집사의 안수식과 이금숙, 지춘화, 박문신 집사에 대한 권사 취임식도 함께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다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성선호 목사(보배로온교회)의 기도, 클리스트리오의 특송,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마 16:13-20을 본문으로 한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지방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립선포, 재무 지용득 목사(순복음하늘빛교회)의 헌금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집사안수 및 권사취임식은 담임 분찬



우 목사(청담온선교회)의 집례로 임직자 소개, 서약, 공포 순으로 진행됐으며 안수집사에게는 안수 후 안수집사패가 수여되었다. 3부 감사와 축사의 시간에는 전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대림본영교회)의 권면, 강남지방회장 김종열 목사(침사광교회)와 이화수 목사(군자대현교회)의 축사, 중경회장 박행남 목사(대유생명교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 담임 분찬우 목사가 교회 창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설립 인사 및 광고를 전했으며, 진등용 목사

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987년 설립된 온선교회(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북 피주지방회 소속 설립자 고 분오장 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번지에 지교회인 청담온선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며 “온 세상과 세대에 온전하고 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청담온선교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신 참석자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월례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진 목사)는 지난 달 2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새생명교회(박정욱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기도, 한석현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정기영 목사(순복음새움교회)가 설교했다.

정 목사는 눅 16:9-1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불의한 청지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고 율법에



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을 돌아보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강조했다. 통성기도 후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의 헌금기도, 유봉수 목사(해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이어서 2부 회무처리는 지방회장 한명진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에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을 소개하고, 신학교 이전문제 등을 논의했다.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친 회원들은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박정욱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평강교회 담임 김이덕 목사 소천

15년 동안 목양일념으로 충성스럽게 헌신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 경주평강교회 담임 김이덕 목사가 지난 7월 22일 밤 10시 15분경 소천했다.

고 김이덕 목사는 청년 시절 포항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를 만나 처음 예수를 영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봉사해오다 이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단 신학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던 중 본인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포항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의 부름을 받고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다 경주평강교회로 파송을 받아 담임목사로서 주님의 맡기신 일에 약 15년을 목양일념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했다.

천국왕국에는 김이덕 목사가 담임했던 경주평강교회에서 드려졌으며, 정례의 집례



를 맡은 배진기 목사(포항 안디옥교회)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천국소망 부활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지방회인 영남동지방회 그리고 대구경북지방회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한 경주평강교회 성도들도 담임 김이덕 목사의 소천에 슬퍼하건서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천국가신 목사님께 감사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봉사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오경덕 목사(영남동지방회장)의 사회, 경주기독교연합회 회장의 기도, 중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설교, 강태진 목사(안동 성곡교회)의 축도로 진행했다.

한편 포항안디옥교회 성도들도 형제교회로서 기도하며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며 헌신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쇠고개로 219(여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 생명의 말씀 ■



한명점 목사

· 부산지방회장
· 은혜와평화교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거처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덴동산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그리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곳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해방시키려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정점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억눌려 노예생활을 하면서 늘 배고프고 삶에 구속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형통케 하는 삶을 살자

(수 1:1~9)

들을 그런 식으로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 자체에서 형통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 못지않게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고 성을 망치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속에서 모세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해와 달을 머물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해갈 때 가나안 원주민 일곱 족속을 전부 멸해버리고 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에 고난과 역경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통은 육신의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힘없이 멋지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소유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테에 이르는 헛족속의 온 땅과 또 하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모세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졌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세와 비교해 보니 상대가 안되었습니 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준비된 사람이요, 자기는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

한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비결의 첫째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활동합니다. 꿈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견디어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 밖으로 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되지, 편안하게 살다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분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기대와 꿈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그것을 비전화해야 합니다. 나의 꿈으로 만들어야 합니

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므로 확실히 이루게 후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 9:15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는 꿈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명한 꿈, 내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놀지 않습니다. 인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인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3가지 표어를 내 걸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후배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지역을 감당한 선교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낸 꿈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저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들도 문제가 많다. 일단 보도하고 보자는 흥미끌기식의 선정적 보도 태도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회나 목사 이름만 나오면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무조건 기사화하는 무책임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언론들은 각성하고, 올바른 언론의 기능을 다하여, 언론수용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사회적 공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진위를 밝혀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거짓에 낚여,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한 네티즌들과 인터넷 포털사는 각성해야 한다. 단순히 관련 카페를 폐쇄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검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도 어떤 ‘유포’를 제거하면, 무분별하게 따라가려는 속성을 보였다. 지난 해 경찰의 조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경찰의 ‘유포’라는 선동에 흥분하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피해의식이 강한 네티즌들의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 동정이, 대국민 사기극 연출을 의심하지 않고 돕게 되어, 사회적 불신만 키운 사례가 되고 말았다.

둘째는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무분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에 ‘교회’ ‘목사부인’이라는 말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욱 선정성을 띄었다.

그러나 어떤 종교보다 건강한 기독교에 대하여, 지나치리만큼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건강성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네티즌들이 사실 관계에 앞서, 무조건 당사자 호소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기독교 폄하와 매도를 한 것은, 병적(病的)이라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일명 ‘세 모자 사건’ 이 남긴 후유증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세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소위 세 모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자신들이 전직 목사인 남편과 역시 목사였던 사이버지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교계 언론들은 별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아머니 이 모 씨와 두 아들) 기자회견 내용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이 모 씨가 쓴 “나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 왔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인데 이 씨가 남편과 사이버지로 부터 수도 없이 성폭행을 당했고 미약을 투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혼음과 성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론은 달궈졌고,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공분(?)을 느껴, 이들을 돕자는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그 회원 수만도 3만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 씨는 남편, 사이버지, 지인 등 총 3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이 세인들에게 관심을 더욱 끌게 된 것은, 목사라는 신분과 교회가 거명되면서, 기독교 안티 상황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여파 때문에, 지난 7월 25일 모 지상파 방송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의 전모를 방송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 씨에 대하여 ‘하동북지법 위반’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무고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세 모자의 사기극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방송 제작 도중, 세 모자의 의문스러운 이종적인 태도가 발견된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전 남편과 언니 등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 모 씨와 ‘이모 할머니’로 통하는 무속인 김 모 씨와의 관계도 수상하다. 그래서, 무속인의 ‘힘’을 받은 어머니의 ‘사주’에 의해, 두 아이들까지 거짓 고백을 한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해진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생조각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에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바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3~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목양칼럼

김갑신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새여수순복음교회

일편단심(一片丹心) 민들레

민들레란 일종의 다년생(多年生) 들꽃로서 1년 중 제일 먼저 새싹을 내며 늦가을까지 자생하고 종족을 많이 퍼뜨려 '민초'라고 한다. 또한 년 중 가장 먼저 싹을 내며 늦가을까지 장수하는 풀이다.

이 민들레를 우리 고장에서는 일명 '머슴달래'라고도 하는데, 머슴달래라고 하는 이름에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인을 섬겼다. 그런데 이 머슴은 과로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맘씨 좋은 주인은 그를 따뜻한 양지쪽에 묻어 주었다. 이듬해 새봄에 죽은 머슴 무덤에 찾아간 주인은 머슴의 무덤에 하얀민들레꽃이 만발하게 핀 것을 보고 이는 머슴의 슬픈 넋을 달래는 꽃인가 해서 '머슴달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민들레는 양지쪽에 묻힌 머슴의 무덤에 핀 것처럼 양지쪽을 좋아해 매년 이른 봄이 되면 땅의 척박함도 이랑곳하지 않고 양지쪽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른 봄 양지쪽 제일 먼저 새싹을 내고 꽃을 피워 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민들레를 '봄의 전령사'라고도 부른다. 마치 충성스러웠던 종(머슴)이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주인을 섬겼던 사람의 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민들레는 참으로 소박하고 향상 낮은 작은 키로 자생한다. 그래서 일명 앉은뱅이 풀이라고도 하며, 생명력이 강하고 어떠한 고난도 잘 견디는 풀이다. 못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꽃을 피워 자기 종족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다. 민들레가 지니고 있는 이런 특징을 여인으로 비유하자면 정조(情操) 즉 절개(節操)가 굳은 여인과도 같다.

또 민들레는 사람들의 몸에 좋은 약초가 되기도 한다. 노란 민들레와 흰 민들레 두 종류의 민들레 중에서 흰 민들레가 사람에게 더 좋은 효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간장, 특히 이뇨작용이 잘됨으로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좋은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60세 늦은 나이에 신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탓에 회복이 잘 안되어서 약간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한때는 신장지수가 위험수위까지 높아졌기에 담당의사에게 열려스런 말도 수 차례 듣기도 했었는데 어느 지인의 권고로 민들레를 채집해서 차를 만들어 꾸준히 마셨던 결과 신장지수가 지금의 정상에 가까워져 좋아졌던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들레를 재배하는 어떤 분이 하얀 민들레 생신을 늘리기 위해 번식이 더 잘되는 노란 민들레와 접을 붙여보기도 했고, 노란 꽃과 흰 꽃을 교배도 해 보았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마지막 방법

으로 노란 민들레와 하얀 민들레의 신방을 민들레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 습도 초기 환경을 맞춰 온갖 정성을 다해 꾸며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꽃을 피울 때는 노란 꽃은 노랗게, 흰 꽃은 하얗게 피고 말더라는 것이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 6:6)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미물이나 들꽃의 생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들레가 지니고 있는 정조(情操)는 고도의 과학도 의학도 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이 대목에서 지조가 없이 환경과 지인관계와 알뜰한 속물스러운 상념으로 쉽게 흔들리고 비방하며 너무도 경솔하게 변신하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해 보고 싶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민들레에게 자신을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어떨겠나? 우리 모두 심기일전으로 어떠한 불의외도 타협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통합된 우리 교단을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중들이 아니겠나? 하고 감히 권고해 본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十字架道)에 바로 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온선칼럼

문찬우 목사 //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A), 호서대 신학박사 (Th.D) 창담온선교회 담임

하나님의 사람들

(창 1:28)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던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세(末世)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나?" 갑작스런 질문에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네? 아, 그야... 뭐, 한 서기 2천 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만면에 짓궂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하셨습니다.

"틀렸어. 틀렸어. 말세는 왜정(倭政) 때였어!" "네?" "왜정시대 몰라? 일제시대!" "왜?" "그 때 내가 학생이었는데, 나의 할아버지가 그러했거든. '저기 저 남학생들 좀 보라. 가발을 염구리에 끼고 교복 모자 빼먹하게 돌려쓰는 꼴이구나. 이거야말로 말세로구나. 말세.' 하 하 하 하. 그러니까 왜정 때가 말세지."

그렇습니다. 신학이나 과학적 추론과는 관계없이, 노인들에게 말세란 젊은이들이 판을 치는 모든 시대들의 미환나다.

심리학(心理學)에서는 사람이 60세 정도에 이르면 세상을 향한 단절, 혹은 수용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환경 적응력을 지닌 사람들은 현실을 수용하여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을 획득합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격렬히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역경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절이란 절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시대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입지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세상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세상을 버리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다 왕따시켜버린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언젠가 기독교회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른 손엔 성경을, 왼 손엔 신문 읽을!" 교회가 진리를 들고 있어도 시대적 정황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나?는 주장입니다. 백번 옳습니다. 자동차를 모르던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듯이, 시대를 모르는 자도 시대를 구원치 못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문화위임(cultural mandate)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와 세상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세상이 그저 말세로만 보이고, 젊은이들은 모두 문제아들로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이어서 일까요, 아니면 불어시일까요? 그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우리 어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바선협,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

남북 나눔과 통일위한 기반조성 등 협의

세계비율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 30분 여전도회관에서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이성진 목사 사회로 이성진 목사의 기도, 기태영 목사의 성경봉독, 전용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전용만 목사는 요일 4:7-11절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은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이승진 목사의 한글기도, 황준익 목사의 한글송, 조지현 목사의 성시낭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중석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황준익 목사의 평양 방문예정, 회원인 문원순 목사의 통합 촉 부총회장 출마 전을 알렸다.

전용만 목사의 축도 후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사회



로 시작된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는 '교회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강봉구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황준익 목사가,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김중석 목사가 특별기도를 한 후 참석자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통일을 위하여 통성기도를 했다.

동 협의회는 남북나눔과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등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2015 글로벌선진학교와 함께하는 어린이 찬양경연대회

글로벌선진학교에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2015 글로벌선진학교와 함께하는 어린이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글로벌교육선교회와 주관하고 기독교방송C채널이 후원하는 어린이 찬양경연대회는 6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참가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25팀(독창 18팀, 중창 6팀, 합창 1팀)이 지원하여 참가자 가족과 친구들의 열띤 응원 속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KBS 창작동요제 대상 수상 곡 외 다수의 찬양곡을 작곡한 윤희준 작곡가와 신기남 가수, 박상미 가수 그리고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김혜련 교감을 심사위원으로 경연을 펼쳤다. 이들의 일정으로 예선과 본선이 치러졌으며, 예선에 참가한 22개팀 중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 끝에 대상은 노래하는 세상동이 중창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는 꿈누리 중창단, 우수상에는 월드비전교회(WVCH)와 장려상에 최하은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대상은 트로피와 상금300만원, 최우수상 트로피와 상금100만원, 우수상 트로피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트로피와 상금20만원이 수상되었다.



처음 개최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참가자들이 경연에 참가하였으며, 글로벌교육선교회에서도 예선 및 본선 경연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본한 참가자 가족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 다

음번 글로벌선진학교와 함께하는 어린이 찬양경연대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것 같다"면서 내내에도 참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본선대회의 영상은 기독교방송C채널에서 2주 후에 방송될 예정이다.

www.gengem.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 1부, 설교자용 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동웅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김병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

주제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요 10:11)

강
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김인규 목사
증경총회장
은혜와평강교회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조원익 목사
부총회장
순복음추계교회



김양인 목사
광주지방 회장
목양제일교회



이규호 목사
예하성 강원신학교 학장
순복음동산교회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 관 신학발전위원회(위원장 차갑선 목사)
신학교리국(국장 황용연 목사)

대 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 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1-0263-4761-73 이경진)



차갑선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시흥순복음교회



황용연 목사
신학교리국 국장
은혜와평강교회



이경진 목사
신학교리국 차장
다사량교회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황용연 목사
(010-9321-0675 : immeosm@hanmail.net)
신학교리국 차장 이경진 목사
(010-6355-5013 : love-kjsh@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님, 신학생)을 2015. 8. 10(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5. 8. 24(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자랑을 함께 합니다.

첫째 날(8월 24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2:00~13:00	등 록	신앙 : 총회신학교 시회 : 김창목 목사(총무) 기도 : 예하성주신학교 교수 중 설교 : 진등용 목사(총회장)
13:00~14:00	개 회 예 배	
14:10~15:40	다양성 목회 1 (가적 전도 목회)	시회 : 조선남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강사 : 김양인 목사(광주지방 회장)
15:50~17:50	특 별 강 의	시회 : 황용연 목사(신학교리국 국장) 강사 : 조용목 목사(총회 위원장)
17:50~19:00	저 녁 식 사	강의 후 사진 촬영
19:00~21:30	다양성 목회 2 (성령대방화-부흥목회)	신앙 : 예하성주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신학교리국 국장) 기도 : 최병진 목사(예하성주신학교 학장) 연금 : 총회신학교 학생회장 강사 : 임종달 목사(총회 목회대학 원장)
21:40~23:00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회 : 변원석 목사(청주교회 담임)
23:00~	취 침	

둘째 날(8월 25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07:00	자유로운 금식	
07:00~08:00	경 건 회	신앙 : 예하성주신학교 시회 : 오세준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설교 : 이규호 목사(예하성주신학교 학장)
08:00~08:30	산책 및 자유시간	
08:30~10:00	다양성 목회 3 (선교목회)	시회 : 임원순 목사(총회 신학교 교수) 강사 : 장무용 목사(대림 별관교회 담임)
10:10~11:40	다양성 목회 4 (현실목회)	시회 : 윤경현 목사(예하성주신학교 학장) 강사 : 김인규 목사(증경총회장)
11:4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폐 회 예 배	신앙 : 예하성주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총회신학교 교수) 기도 : 예하성주신학교 교수 중 강사 : 조원익 목사(부총회장) 연금 : 예하성주신학교 학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등용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차갑선
총 무 목사 김병목 신 학교 리국 장 목사 황용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 여목회자 리더십 훈련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 안에서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리더십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를 주제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 일 시 | 2015년 8월 24일(월) ~ 25일(화)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원
| 등록비 | 1인당 10,000원(계좌 : 농협 356-1047-1351-03 탁정신)
| 접 수 | 2015. 8. 24(월) 10:00 ~ 10:50(예배 10분 전까지)
| 시 상 | 찬송경연대회, 5분 설교대회, 수련회M.V.P.
지부별(지방회별) 최다 출석상
| 문 의 |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H.P. 010-5313-3379)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H.P. 010-8000-5841)

- 각 지부장은 숙식준비관계로 각 지부별(지방회별) 참석인원을 2015. 8. 10.(월)까지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010-8000-5841)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참가자는 2015년 8월 1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표

첫째 날(8월 24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0:00~10:50	등	인 도 : 김상우 전도사(전원김리교회)
11:00~11:30	찬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탁정신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동양장로교회, 바리톤성악가) 설 교 : 진동용 목사(총회장)
11:30~12:20	개 회 예 배	한글기도 : 이경자 목사 오리엔테이션 : 김선경 목사
12:30~14:00	점 심 식 사	
14:00~14:30	찬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4:30~15:30	특 강 1	주 제 : '리더십'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바울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 강 사 : 조용목 목사(정책위원장) (강의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
15:30~17:00	레 크 레 이 션	강 사 : 조성훈 전도사(전문강사)
17:00~18:30	저 녍 식 사	
18:30~19:00	찬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9:00~20:00	지부별 찬송경연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20:00~20:30	간	식
20:30~22:00	성 령 대 망 회	사 회 : 김바울 목사 기 도 : 최영희 목사 특 송 : 이화숙 목사(전주지부, 순복음우리교회) 강 사 : 탁정신 목사

둘째 날(8월 25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06:30	아 침 기 도 회	기도 : 한순남 목사 설교 : 김선경 목사
07:00~08:00	아 침 식 사	
08:00~08:30	찬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08:30~10:30	특 강 2	주제 : '이슬람 바로 알자'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김호신 목사 특 송 : 박경숙, 서정희, 최갑식, 한원화, 이화숙 목사 강 사 : 김하나 선교사
10:30~12:30	5분 설교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12:30~13:30	점 심 식 사	
13:30~14:00	찬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4:00~15:30	특 강 3	주제 : '성령충만한 여목회자의 지성과 인성'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순자 목사 강 사 : 김병훈 교수
15:30~16:20	폐 회 예 배	사 회 : 함정임 목사 기 도 : 명영란 목사 설 교 : 정부용 목사 한글기도 : 조영란 목사
16:20~16:30	시 상 식	1. 찬송경연대회 2. 5분 설교대회 3. 수련회M.V.P. 4. 지부별(지방회) 최다 출석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한국신학회 이사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진동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김병목 목사
총무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여교역자국 교문



정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림멜로교회 담임

대회준비위원장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대회총진행



김선경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천안세계로교회 담임

외부강사



김하나 선교사
중동아시아국가 선교사
부산외대 교수



김병훈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
목회상담학 박사

대회준비위원

- 행사부장 김바울 목사 (경기지방회, 순복음진리교회)
- 예배부장 김호신 목사 (경기남지방회, 순복음찬양교회)
- 친교부장 최영희 목사 (안산시흥지방회, 예준순복음교회)
- 경조부장 김순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회복의교회)
- 홍보부장 명영란 목사 (경기북지방회, 향기로교회)
- 정보통신부장 함정임 목사 (경기북지방회, 새소망순복음교회)
- 복지부장 이경자 목사 (충남지방회, 순복음경동교회)
- 봉사부장 한순남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반송교회)
-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 (일산지방회, 일신멜로교회)
- 선교부장 조은주 목사 (광주지방회, 순복음참종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 각 지방회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가는 아이들… 네팔에서”

월드비전 등 국제NGO, 네팔지진 합동조사 보고서 발행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과 그 후 총 100여 차례의 여진이 네팔 아동의 교육, 노동,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4일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플랜인터내셔널과 합동 조사하여 만든 보고서 ‘After the Earthquake: Nepal’s Children Speak Out: Nepal Children’s Earthquake Recovery Consultation (지진 그 후: 네팔 아동의 목소리: 네팔 아동의 지진 회복 상담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네팔 17개 지역 30개 마을의 아동 2,000여 명을 대상으로 166차례 진행한 소그룹 상담 인터뷰를 통한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지진이 발생한 지 90일이 지났지만, 320만여 넘는 아동들은 임시텐트,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아동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적절한 주거 환경, 학교, 안전한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의 부재를 꼽았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아동 중 84%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 지진피해 지역 누와코트의 한 소년은 “임시 텐트는 폭풍우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어요. 폭풍우가 있는 날엔 밤을 새며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임시텐트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동들은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특히 여자 아동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며 사생활침해,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 대부분이 또 다른 지진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친구의 사망 모습 목격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플랜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 몇 달간의 위기 동안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

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루시아위더스(Lucia Withers)는 “네팔 지진으로 약 80만 개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는 지금 여전히 수 천명의 아이들이 부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하며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네팔 월드비전 긴급구호 총괄 애드미어 바즈라미(Admir Bajrami)는 “부모를 돕기 위해 노동을 하거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160만 네팔 아동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심리적 지원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며 월드비전 36개 아동보호센터와 원센터 (Child Friendly Space)와 25개 임시학교의 심리치료 및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월드비전 서울지역 4개 지부, 아동의 ‘놀 권리’ 주제

‘제12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서울지역대회’ 개최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 서울지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제12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서울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한 번씩 개최하여 올해로 12회를 맞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UN 아동권리 중 발달권에 해당하는 ‘놀 권리’를 주제로 삼았고,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간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아동들은 주제에 맞는 놀이와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동권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웠다. 특히,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주제에 따른 토론

및 발표를 통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정단을 선출했다.

정책제안 결의문으로는 ‘교내 놀이시간 및 공간 확보’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개선’ 등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의정단으로 선출된 박찬비 양(15세)은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기 어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를 통해 제안된 결의문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 결의문으로 완성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2014년 월드비전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그린 푸드존 강화 및 단속 강화’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월드비전 서울남지부 전제현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UN 아동권리 중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진행됐다”며 “무엇보다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을 구현하여 아동이 존중 받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조례안”서 ‘사회적 성’ 삭제

구로구 의회, 성소수자로 오해 소지 있다면 삭제 추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가운데, 원래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모범에도 없는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성’을 넣는 곳이 있어, 지자체 조례제정 위법성에 대한 시비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 대표적 인물이 대전시이다.

그런데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즉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제2조 3항에 보면,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성’은 ‘동성애’를 표방할 수도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교회연합회에서는 일간지에 7월 29일에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므로, 이에 구로구의 회 관계자와 보육지원과 에서는 구로구교회연합회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성’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구로구청의 보육지원과는 ‘사회적 성’이란 1955년 여성대회에서 성차별 철폐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사

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성소수자와 관련이 없다며, 성소수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삭제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원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의무 및 사회참여와 복지에서 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례제정 과정에서 모범에도 없는 ‘사회적 성’을 공무원 마을대로 삽입했다면 조례제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법과 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지자체 조례 제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대전시도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없는 ‘성 평등 조례’의 제3조 2항과 제22조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은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 대전시는 물론 모든 지역 교회들이 지자체들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엄격히 감독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므로, 모범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잘못된 조례들은 하루 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회 늘푸른아카데미 강좌

송자 박사, 교육의 자율화와 투자강조

제99회 늘푸른 아카데미 특별강좌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중앙교회 가우저 기념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특별강좌는 윤연수 전 감리교 감독 사회로 신현주 목사의 기도, 아카데미합주단의 기악연주, 특강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송자 박사(명지학원 이사장)는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인데 우리 교육은 지식만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우리 교육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평준화보다는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푸른아카데미는 매일 한국교회계의 지도자급 목회자나 한국사회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박회 제를 맞는 오는 8월 20일에는 은준관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가 ‘한국교회의 마지막 고루터가 교회학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한교연, 이단 규정 및 해제는 각 교단 고유권한

바수위 이단 조사는 회원교단 협력 일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최근 신옥주 목사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단의 규정과 해제는 각 교단의 고유 권한으로 연합기관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이단사이비에 대해 연구 조사하는 목적은 회원교단들과 협력하기 위함일 뿐 이단의 규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교연은 최근 회원교단인 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우종후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2차에 걸친 출석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예장 합신 총회가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불만을 품은 신옥주 목사 은혜로교회 교인들이 지난 1월 예장 합신 총회 신년하례회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합신 총회가 한교연에 공동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연구 조사를 착수해 지난 6월 19일과 7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옥주 목사를 출석시켜 신화사상에 대한 질의응답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임원회에 보고된 후 공동대처 방안을 세우게 되며, 조사 내용은 예장 합신 총회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신재섭 목사 출판기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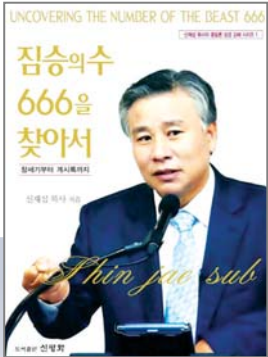
■ 세미나 일정 : 2015년 8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참 가 비 : 50,000원(책값 포함)

■ 장 소 : 금천구 금빛공원 앞 순복음약속교회
(010-4380-8751 010-8322-9191)

유튜브 동영상 검색
신재섭 목사(도서출판 신평화)



대표적인 참석자 소감

“세미나 참석 후 영적 매매 사건을 알고 감격과 충격으로 책을 새벽 4시까지 다 읽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 정도로 자세히 풀 줄은 몰랐습니다.” (영평교회 조경애 목사)

“신재섭목사님의 책은 우상과 짐승의 수 666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밝히고 있다. 계시록 해석하는데 있어서 친구와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창신고등학교 장상규 교목)

“짐승의 수 666이 너무 쉽게 풀어지는데 왜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악속 전도사)

※ 성경 66권을 풀어내는 강의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설교로 성경 66권이 통나바루처럼 다 열려집니다

‘혈몬산 기도의 집’ 매주 목요일

일일집회 및 찬양기도회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 기도의 집에서는 매주 목요일 일일집회 및 찬양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과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담임 김남순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장 소 혈몬산 기도의 집(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13번지 031)356-9154

문 의 혈몬산 기도의 집 담임 김남순 목사 010-2415-2062

한국아동문학회 세미나·정기총회

김영일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주제로 130명 참석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은 한국아동문학회(회장: 김철민)는 제45차 여름 정기세미나와 제61차 정기총회를 전남 함평 샛별힐링센터에서 가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함평군 해보면 울림피로 1036-7번지에 소재한 예술로문대학교 한국분교 강당에서 가진 세미나는 국내외 거주 아동문학자 150여 명이 참석해 초대 한국아동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 김영일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역사적 재평가와 김영일 아동문학의 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제 1주제 강연은 유창근 박사(명지전문대 문창과) 명예교수가 김영일의 시를 중심으로 <낯설음의 미학>을, 그리고 제2주제 강연은 권석순 박사(강릉대학교 출강)의 실험의식과 자기동일성을 중심으로 <김영일 동화연구>를, 특별 강연으로 김철수 박사(예술로문대학교 한국학장)의 <광주·전남아동문학회의 역사와 미래>를 각각 맡아 강연했다.

또한 세미나 기간 중에 동화가 제정된 제3회 「김영일

다림쥬문학상」과 「백록목 아동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특별강연을 맡은 김철수 박사는 전남 함평출생으로 지난 '81년 월간 『기독교교육』사에서 공모한 <기독교아동문학상>에 동시 「새벽종소리」가 입선되고 이어 '84년 한국문인협회 기관지인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동화부문에 작품 <구렁이 장군>이 당선되어 중앙문단에 데뷔 한재까지 동화집 <우산장수 할아버지>, <꽃제비> 등 총 305편의 창작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중진 아동문학자로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와 전남PEN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지난 1988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출간한 아동문학 순수문학지인 월간 『아동문학』 발행인으로 지령 233호를 발간하면서 동화작가 및 동시인 등 600여 명의 국내외 아동문학자를 발굴 육성 해온바 있는 아동문학계의 중진작가다.

한국아동문학회 제45차 여름 정기세미나 기간 동안에 상해인사정부터 독립투사 김철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여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고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을 견학 자연과 함께 정서적 치유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 ... 한국교회의 대안이요 사명

지난 6월 8일 카톡에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를 알게되어 전도에 고심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줄기 빛으로 보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가족세트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그날 오후 전단지과 교회에 만들고 다음 수요일 평내순복음 교회로 달려갔다. 먼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쫓고 예비 된 영혼 만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와, 주일 11시 예배에 오는 전도현장에서 만난 예비 된 영혼을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박영수 목사와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비된 영혼들에게 예수영접을 시키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성령의 뜨거운 불에 감전되듯이 그들은 말씀 앞에 짝짝 달짝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영혼의 갑갑함을 보았다. 세상은 풍족하고 화려한 듯 보였지만 영혼의 갑갑함으로 목이 마른 그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일 뿐이다. 그 밑에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 광경을 보고 전도할 자신이 없어 여러 핑계를 대는 속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전국을 향하여 전도로 목숨을 걸고 “앗아 가 다리지 말고 가서 제자삼아라” 하나님께 없는 목숨을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오를 도 바쳐야 한다.

“가족세트전도 무료컨퍼런스” 박영수 목사와 함께 6월 15~16일 2일 동안 말씀을 듣고 현장체험을 함께했다. 횡단보도, 정류장, 공원, 점포 일하다 만난 그들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낯과 사색에 전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 같았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장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 1분 만 기도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며 기도를 하는데 감전된 물고기처럼 전혀 모르는 그들은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신상병세를임으로 토하고 있는 것이다.

“영접하는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또 한편 성령의 기쁨과 도전,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여기 예수 없는 심령들이다. 주님은 양친구 신월동에도 저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예비해 두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사랑의 십자가 다리가 되게 하셨다.

3초의 여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일사천리의 예수영접은 불같은 성령님의 인도였다.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박영수 목사와 한국의 5만 5천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천국의 수많은

동영상: <http://blog.naver.com/bye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카트만두 선교 현장에서

“네팔의 영혼구령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진의 고통 속에 한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네팔, 그러나 이들의 영혼구령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한 네팔에서의 2개월

우기에 접어들면 매일의 날씨, 하루 중 어김없이 빗방울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인네들의 모래기 손길은 더욱 분주해지고 이미 모종이 끝난 들녘엔 하루만 비가 오질 않아도 모판이 말라버리는 이곳의 사정은 아무래도 좀 어둡습니다. 때를 따라 어김없이 더도 덜도 말고 적당히 내려주시기만을 기도하며 이 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님’ (34)은 지난 삼년간 장애인교회에서 만남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주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청소년 사설복지기관의 후생분야에서 주로 식품공급을 담당하는 직원인데 지난 4월의 지진 때 거주하던 집이 무너져 탈사될 동리로 이사, 스텐인레스 지붕과 벽돌로 새로 지은 방 1칸, 부엌 1칸의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외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면 학교 병원, 복지기관, 신학교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시골에 교회나 학교건물을 지어준 후 비로소 현지인들의 인정과 협조를 받으며 사역이 시작되지만 본 선교사는 일단 주어진 지금의 여건에서 손이 닿는 일부 타시행해야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찾아 기도가 부족하면 몸으로라도 부딪치며 개인 전도를 일상화시키고 해일을 앞장 세워 노력하여 나민이가 방치된 가정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일과 전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우선적으로 세워주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늘 함께하는 속사랍 안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골반암을 앓으며 치타완과 카트만두의 캄캄기를 오가며 치료받고 있는 베타델 씨(65)의 병세는 별반 달라진 게 없지만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해님(사진 오른쪽)과 함께...

임으로 일원단심의 기도와 확산만이 당신을 살릴 것이라 보면, 위로하고 한국에서는 이미 패스컴을 통해 이미 알려진 열대우림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글라비올라(향안치료제) 잎사귀를 구해 차를 달여 마시는 처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글라비올라(네팔어로 사리파) 목욕이 그의 고향인 치타완에서 적지 않게 생산된다하여 들러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네팔의 지진으로 지구촌 각 곳의 동정아린 관심과 구호가 줄을 잇고 있지만 평년이라면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도시의 타벨 거리는 정적만이 감돌고 어느 시에도 한국인 손님이 떨어지지 않던 축제식당의 코리안 메뉴 밥상은 운영난으로 종업원을 쓸 수 없어 주인장 캘리앙이 직접 만들어 내놓은 음식은 맛을 잃은 지 오래된 듯합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와 성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현장 역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기에, 스스로 일어서서 외치고 증거하며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영혼구령의 애착과 사랑이 끝까지 앞서 간다면 집산과 우상이 주도하는 폭력 집단들에게 전년을 넘어 그 영혼이 유린당하는 네팔의 가련한 백성들을 구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주2015년 7월3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상봉 선교사 드림
후원계좌 - 국민은행 457001-01-002622 김상봉



네팔의 지진현장에서... 허탈해하는 주민

● P/S 본 선교사는 금년 네팔 지진발생과 함께 몽골에서 네팔로 다시 재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비탄 비정치적도 이유이지만 6월 2일 네팔 도착 전까지 현장의 압도한 현실을 사진과 글로 알려 준 친분이 있는 현지 목사님들의 호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막상 도착은 하였지만 어디에서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선교사의 무력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구호물자가 각국에서 쏟아져 들어오지만, 여전히 정쟁으로 인해 공항구내에 적재상태이며 피해지역의 서민들에게 이직 구경 한번 못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먼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향합니다. 설사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된 사람들일지라도 저들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은 바로 택한 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한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이제부터 가난하고 불우한 나의 이웃, 지구촌의 불우한 형제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강도당한 자를 구제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황무지에 뿌리는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배운 순전한 사랑은 차후 하늘나라에서 낙하할 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소문만으로 든든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 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III' 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뽕 뚫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공회)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책 '대화 묵기' 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전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과 악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첨:접수순 100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강사 강 유 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찬송선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 I 편저 • 프리즘문맥 성경II 편저 • 프리즘문맥 키아즘 성경III 편저



• 장호순 목사 •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 ① 공주시부 매주 수요일 09시 ~ 16시
- ② 전주지부 전주삼릉교회 매주 월요일 09시 ~ 17시
- ③ 지부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 담임
- ④ 접수비 : 5,000원(식대)
- ⑤ 주 소 : 충남 공주시 소하동길 15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로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2015년 7월 20일(월)~8월 13일(목) 17:00까지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2015년 7월 20일(월)~8월 13일(목) 17:00까지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8월 1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7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oly Spirit Camp

美AG 한국총회 성령충만 수련회

주제: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 강사진



美AG 한국 총회장
정영호 목사



미국뉴욕프라이머치담임
김남수 목사



예하성 총회장
진동용 목사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오전)~24일(목, 점심 후 하산) 3박4일

장소 CA/아름다운산장수양관
주 소 : 31601 HWY 330, LRUNNING SPRINGS, CA 92382
홈페이지 : SANZANG.COM
E-mail : SANGZANG21@GMAIL.COM

주최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후원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교회성장위원회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국내선교위원회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여교역자회

● 설교 강사 및 각종 강사

- 미국하와이 | Rany L. Iaea Sr Pastor(하와이, 에바비치교회, 하와이성령캠프강사)
- 미국텍사스 | KEITH MILLER Pastor(www.stwm.org)
- 美AG/한국총회증경총회장/김남수 목사(프라이머교회)
- 한국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
- 증경총회장/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 총회장/정영호 목사(뉴욕순복음갈보리교회)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교회성장위원장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국내선교위원장
- 미국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여교역회장 외

기고문

이장형 // 백석대 교수 / 기독교윤리학

‘가나안 교인’ 대체할 용어를 찾자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중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용어이다. 이 말은 ‘하나가’를 뒤집어 놓은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을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교회 제도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확산된 것은 지난해 발간된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책이 교회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가나안 성도’ 등에 관련된 연구 조사도 있었으며, 가나안교인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금까지 나온 ‘가나안’이란 용어 사용 및 관련된 연구가 한국교회를 위한 걱정이며 함께 고민해야 될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음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교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반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지향해 나아가는 최종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땅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시리아 지역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족속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여러 이방인들이 존재했고, 실제적이며 영적 전투를 발야했던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결국 출애굽의 험난한 과정은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나안은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목표이며 약속의 상징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로, 이미 다수의 교회들과 기독교 복지단체들이 ‘가나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유적인 사용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김용기 장로께서 설립한 ‘가나안 농공학교’의 자리매김을 고려한다면, ‘가나안’이란 말이 ‘하나가’의 뒤집힌 정도로 설명

되는 언어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천주교의 경우 ‘냉담자’라는 용어를 통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쉬는 자’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불출석 신자’ 등 적절하고 명료한 용어를 합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유어의 이미지와 전통을 함의하고 있는 성경 고유어의 의미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로, ‘가나안 교인’이란 표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과 사회 문화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기독교를 묶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부활의 증거이며, 아무리 많은 허점과 인간들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를 벗어난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개념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가나안 교인’이란 현실적으로 교인이 되기 힘들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장기기증을 약속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장기기증 서약예배 드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지난달 19일 주일, 전국 4곳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주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피영민 목사)는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본부 이사장인 박진택 목사를 초청해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렸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는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누구나 쉽게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하고, 이 운동을 응원하자.”는 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현장에서 솔선수범으로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다.

박진택 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꼭 해야 할 나눔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감동의 말씀을 전해들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309명의 성도들은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 날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동부교회(담임 강길수 목사)의 예배당에서도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부평동부교회는 1년 전부터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준비해왔고, 이날 11시 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경인지부의 전병찬 국장을 초청해 온 성도와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같은 날, 부산 소망동산교회(담임 김자근 목사)에서 오후 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지부 이광연 지부장을 초청해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다.

특히 오후 예배를 인도한 김봉균 전도사는 오랫동안 만성신부전을 앓으며, 현재로 생활을 하던 한 후배가 기적적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지금은 가정을 꾸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날 주일, 전국 4개 교회에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에 동참했고, 하루 동안 무려 559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



에 동참했다.

박진택 이사장은 “이 땅의 장기부전 환우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동했다. 온 교계와 더불어 전 지역에 생명나눔이라는 나눔 바이러스가 더욱 퍼져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번)

사설

광복 70주년, 영적 대 각성으로 새 나라를...

경축 광복 70주년!! 해방 후 극도의 혼란 속에 출범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지구상의 국가로 세계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실로 감격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해방의 축박이 깃든 연수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날 14일부터 휴일을 선포하고 광복 70주년 전야제와 본 행사, 광복 70주년의 밤행사 등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채 매 분기마다 0%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 앞날의 경제·사회적 발전 전망도 어둡워지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미·중·일·러 등 주변 강국들의 새로운 동맹 질서 형성 조짐에 처하여 외교안보적 곤경에 처해 있다. 김정은 일파의 핵 위협과 대남 도발 또한 잠시나마 방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로 70년의 감격에만 탐닉하여 있을 수는 결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감격적인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가 해방된 감격으로 온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숙연한 명제 앞에 대동단결의 땀방울을 높이 들지 않으면 안 될 시국에 놓여 있다.

영국의 대저 수상은 지난 70년대 초발적인 노동운동과 과도한 사회복지로 영국 사회가 무기력해지고 성장에 멈추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병적인 사회상을 가리켜 “영국병”이라 진단하고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영국병”을 도려내고 나라를 되살리는데 성공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이야말로 그와 유사한 중병을 앓고 있으니 이를 “신 한국병”이라 해도 부인할 자 없을 것이다.

지난 15년 가까운 세월 역대 한국정부가 내세운 만성적인 구호 가운데 이른바 “국정개혁 과제”란 게 있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들은 바로 공공·준법·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4-5개로 집약되어 왔다. 바로 이들 분야의 병통들이 개혁,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한국 사회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는 “신 한국병”의 실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도 노동·공공·연금·교육 등 4대 분야를 가리켜 “4대개혁과제”라 명명하고 이들 분야의 비정상 사태

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인 극한 대립과 정부 여당의 무능력한 리더십으로 인해 이러한 병통이 개혁되고 치유될 기량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회무용론을 외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광복 70주년의 감격을 국민정신 혁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급히 나라를 중흥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신 한국병”을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선거철에 앞서서,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발굴하는 국민적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다.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꾼들이나 기성 사회 각계에 한국의 전 사회적 개혁의 희망을 걸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초(超)법적인 무질서와 불법과 사술들이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온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이고 새로운 정신적 기동력과 영적 새 바람이 일어나야 하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대신 할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정신적 타락상이 극도에 달했던 영국사회를 신앙부흥운동으로 정화시키는 동력을 만들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성정의 기폭점이 되었다. 그것은 1919년 삼일 독립 만세운동의 영적인 기틀이 되었다. 에스겔서 38장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기적은 모두가 성령의 ‘생기’로 된 일이라 했다.

사람들의 생기와 활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대각성·부흥운동의 불길들 다시일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8개 사단법인 연합기관이 오는 8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광복 70주년기념 8·15국가기도회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로 선교대국이 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광복 70주년에 이토록 꺼져 버린 이 나라의 생기를 거이어 불타일으키고 “신 한국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필코 이끌어 내어, 다시 한 번 새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보자.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오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물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임무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례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어떻게 갖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學園 공간미학

K&D 코리아에프엔디
F&D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광복70주년 기념 8·15국가기도회



대표회장 조용목 목사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대한민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 이광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대한민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회장 감경철 장로
CTS기독교TV



이사장 김국경 목사
(대한교회교회부흥운동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회장 고준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세계선교회)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
(대한민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대한민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사무총장 강희준 목사
(대한민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총재 김권현 목사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Tel: 031) 443-3731 ~2)

● 주관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CCUK(The Council of Christian Union organizations in Korea)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 (사)한국개혁신교단협의회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이상 8개 연합기관(한국기독교계 150개 교단 총회)

결 의 문

일제(日帝)의 침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하게 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가 팔목할 만큼 자유와 경제 발전을 누리게 되었고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은 매우 어렵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결 의 -----

1.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갈 조국이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조국과 영토를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조상들의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3·1 독립운동 정신과 8·15 광복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분단된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부정부패, 저 출산, 이혼 및 자살률의 증가, 국제적으로 만연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합법화, 물질만능주의, 도덕과 문화의 퇴폐 등을 심히 우려한다. 이런 일들을 예방 방지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회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밝고 정의롭고 희망찬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내세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을 적극 저지하기로 결의한다.
1.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 비성경적 관용주의를 배격하고 기독교를 표방한 각종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며 배격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符合)하지 않는 교리를 전파하거나 WCC처럼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과 조직체를 단호하게 배격하며 오직 성경대로의 복음전파를 위해 진력하기로 결의한다.
1.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종북반국가세력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과 조직들의 활동이 종식되고 그들이 이 땅에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결의한다.

주후 2015년 8월 12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